

3개월 연속 개선, 관광산업이 경기를 뒷받쳐

~ 행동 제한 없는 골든위크 및 인바운드 수요가 호재 ~

(조사대상 2만 7,930사, 유효회답 1만 1,420사, 회답율 40.9%, 조사개시 2002년 5월)

조사결과의 포인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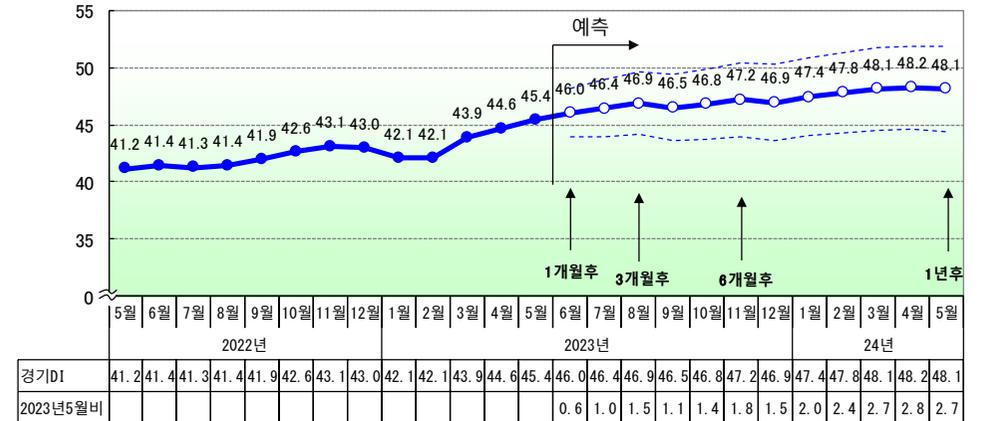
- 2023년 5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.8포인트 증가한 45.4로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. 국내경기는 경제활동·사회생활 정상화로의 움직임이 한층 가속하는 가운데 폭넓은 범위에서 회복의 움직임이 강해졌다. 향후는 비용증가 등 하방요인을 떠안고있으나 완만한 회복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.
- 인파 증가 및 활발한 소비행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이 폭넓게 파급되어 10개 업계 중 9개 업계에서 개선되었다. 또한 51개 업종 중 35개 업종에서 개선, 8개 업종에서 50이상을 기록하였다. 지역별로는 3개월 연속 10개 지역 모두가 개선되었다. 행동제한이 없는 골든위크로 각지의 여행·관광 관련이 호재가 된 한편 지방산업도 상향한 것도 있어 33개 도도부현(都道府県)이 개선되었다. 규모별로는 「대기업」 「중소기업」 「소규모기업」 이 3개월 연속 모두 개선되었다.
- 왕성한 인바운드 수요 및 인파 증가로 인하여 관광 DI는 49.9로 조사개시 이후 최고를 기록하였다.

< 2023년 5월의 동향 : 개선경향 >

2023년 5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.8포인트 증가한 45.4로 3개월 연속 개선, 소비세출 10%로의 인상 직전인 2019년 9월(45.0)을 상회하는 수준에 달하였다. 국내경기는 경제활동·사회생활 정상화로의 움직임이 한층 가속하는 가운데 폭 넓은 범위에서 회복의 움직임이 강해졌다. 4년만인 행동제한 없는 골든위크 및 인바운드 수요 확대 등 전국의 관광스팟 및 이벤트의 인파가 증가하여 음식점을 비롯한 관광산업의 체감경기는 과거최고를 기록하였다. 게다가 음식료품 관련 제조·도매·소매에도 파급하였다. 또한 서서히 반도체 부족 완화가 진행된 것도 호재가 되었다. 한편 자재가격 급등 및 해외 경제의 감속, 생활필수품 가격인상, 인력부족 장기화 등은 마이너스 요인이었다.

< 향후의 전망 : 완만한 회복경향으로 추이 >

향후 1년간의 국내경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경제·사회 시스템의 구축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한층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. 인바운드 수요 및 대면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개인소비 확대, DX 추진 및 자동화·생력화(省力化)로의 설비투자 등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. 한편 미국유럽중국의 경제감속 및 우크라이나 정세의 동향 등 해외 정세의 행방은 불투명감이 강하다. 또한 식품 등 생활필수품 및 전기요금 인상, 인력 부족 장기화, 금리동향 등 우려요소는 산적되어있는 한편, 거기에 임금인상 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. 향후는 비용증가 등 하방요인을 떠안고 있으나 완만한 회복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.



※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. 점선은 예측치의 폭(예측구간)을 나타내고 있다.